

# '편리미엄' 시간을 줄여줄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

ISC 월간 웹진 '일과 사람' 19호에서는  
'편리미엄'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소개해 드립니다.



웹진구독신청하기

## 트렌드+

트렌드+ 포커스 업(業)



프리미엄 라이프를 위해  
편리함을 구입한다. '편리미엄'

파라미터 관리 + 니컬트



'편리미엄'을 통해 본  
산업계 전망

편리미엄 시대의  
이동수단  
미래형자동차를 말한다,  
(주)와이즈오토모티브

트렌드+ 이월의 기원







빠른이과리 + 니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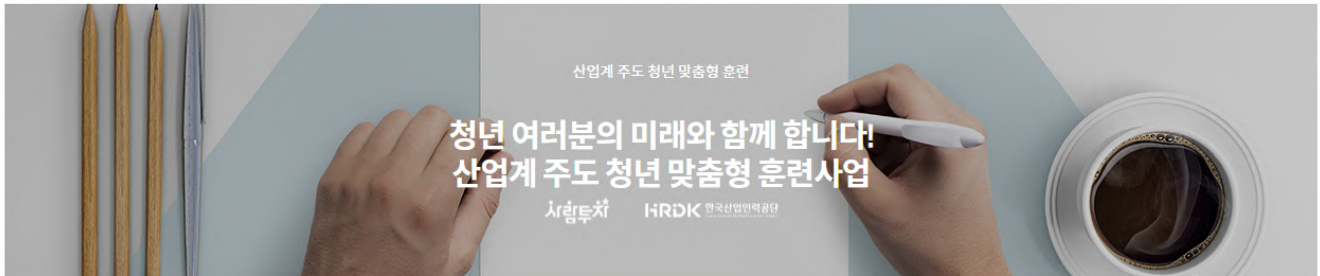


시간이 금이다! 영상계에 부는  
'숫확행' 트렌드

# 심표+

 <p>..... 편리미엄을 추구하는 당신을 위한 <b>호캉스 패키지 &amp; 짐 옮기기 서비스</b></p>	<p>업(業)로드</p> <p>편리미엄을 추구하는 당신을 위한 호캉스 패키지 + 짐 옮기기</p> <p>자세히보기</p>	 <p>1분 1초가 바뀐 업무 시간 클릭 한 번으로 표현하는 <b>직장인'S 이모티콘</b></p>	<p>슬기로운 직장생활</p> <p>클릭 한 번으로 표현하는 직장인'S 이모티콘</p> <p>자세히보기</p>
 <p>CONVENIENCE AS A PREMIUM <b>읽는 것보다 듣는 것이 편한 법</b> 오디오북</p>	<p>생활의 발견</p> <p>삶에 편리함 더하기+</p> <p>자세히보기</p>	 <p>영화로운 ISC <b>시간이 돈인 세상, '인타임'</b></p>	<p>영화로운 ISC</p> <p>시간이 돈인 세상, '인타임'</p> <p>자세히보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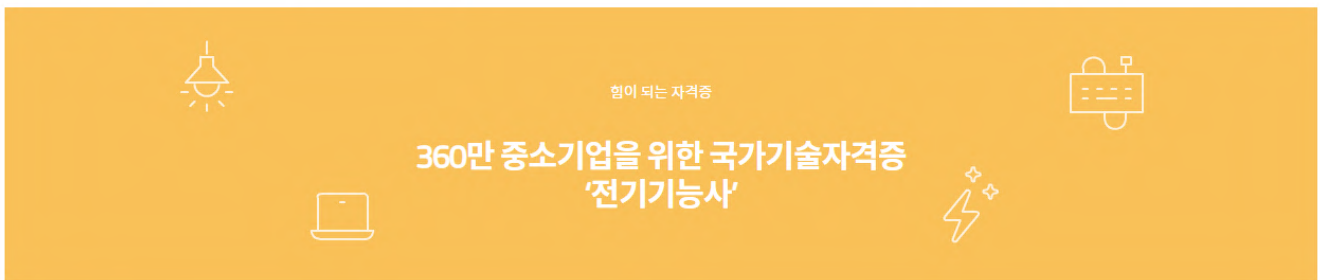
# ISC+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청년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합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시험투자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힘이 되는 자격증

**360만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기능사'**

**독자참여** +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독자와 함께 만드는 ISC웹진

**ISC 웹진 리뷰 만족도 설문조사**

☑ 참여하기

포커스 업(業)

# 프리미엄 라이프를 위해 편리함을 구입한다. '편리미엄'

## 시간을 돈으로 삽니다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방법에 흔쾌히 지갑을 연다.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비용을 더 쓰더라도 편리한 것을 원하는 것이다. 이를 '편리미엄'이라고 한다.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합친 신조어를,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아이템과 서비스를 선호하는 현상을 뜻한다. 발품 대신 손품을 팔고, 비용을 써서 확보한 시간은 더욱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한다. 프리미엄 라이프를 위해 편리함을 구입하는 현대인, 바야흐로 시간을 돈으로 사는 시대에 살고 있다.

## 전자레인지로 데워먹는 셰프의 맛

편리미엄 현상은 외식업계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로 HMR(가정간편식; Home Meal Replacement)이 더욱 성장하고 있다. HMR은 일종의 즉석식품으로 3분만 데우면 끝인 카레, 컵라면 등이 있다.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했다고 하면 왠지 서글픈 느낌이지만 요즘의 HMR은 차원이 다르다. 높은 퀄리티의 맛을 제대로, 또 편리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에 자랑할만한 비주얼의 '밀 키트(meal kit)'가 인기다. 가니쉬를 곁들인 스테이크, 알록달록한 색깔의 밀피유 전골 등이다. 최근 CJ제일제당에서 출시한 HMR 제품 '죽킷'으로는 프리타타, 우럭찜, 간소새우 등 외식을 통해서나 먹던 메뉴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비주얼에 편리함은 물론, 자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검색할 수고를 덜어줄 레시피 동영상과 신메뉴 출시 알람을 제공한다. 편리미엄을 지향하는 서비스로 소비자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것이다.

집에서 거리가 먼 맛집의 메뉴를 그대로 담아낸 HMR 제품도 만날 수 있다. 마켓컬리는 흥대 '미미네 떡볶이', 연남동 '소이연남'의 쌀국수, 도산공원 '그랑씨엘'의 파스타 등을 HMR 제품으로 선보였다. 또 SG다인힐은 '셰프스 테이블'을 발매했는데, 이는 정상급 셰프들, 유명 레스토랑과 협업한 HMR 제품이다. 이동하지 않고, 긴 줄을 기다리지 않아도 맛집의 메뉴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HMR 제품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우린 서울 맛집을 부산에서, 제주 맛집을 강원도에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 손 까딱할 시간도 아까운 당신, 불러라



온라인으로 호출해 오프라인에서 도움을 받는 인력 중개 플랫폼이 떠오르고 있다. 이곳에선 간단한 심부름은 물론, 반려견 산책, 한정판 제품 구매·맛집 줄 서주기 등 '시간을 써야 할 일'을 대신해줄 사람을 부를 수 있다.

호주엔 '에어 태스커', 미국엔 '태스크 래빗', 한국엔 '애니맨', '도와줘', '김집사' 등의 플랫폼이 있다. 도움을 요청하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지원하는데, 서로의 희망 보수가 맞으면 거래가 성사되고 중개 역할을 한 플랫폼이 수수료를 떼는 형식이다. 업계 추산 데이터에 따르면 인력 중개 플랫폼의 건당 평균 인건비는 1만 5천 원 선, 하루 평균 의뢰 건수는 22만 건이다. 또 현재는 단기성으로 일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플랫폼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향후엔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가사·육아는 장비빨!

집안일보다 다른 곳에 시간을 쏟길 원하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이들의 '삼신가전' 사랑은 식을 줄을 모른다. 삼신가전은 '가사 부담을 덜어줄 세 가지 신의 가전제품'이라는 뜻으로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를 말한다. 삼신가전은 신혼부부의 필수 혼수로 자리 잡아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의류건조기는 하루 걸려 마를 빨래를 2시간 만에 건조해 주고, 식기세척기는 앞서 언급한 HMR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요리와 뒷정리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금상첨화다. 로봇청소기는 청소 후 충전까지 스스로 하니 정말이지 신이 내린 가전제품이라고 할만하다.

'육아는 장비빨'이라는 말도 편리미엄과 떼어놓을 수 없다. 갖가지 장비로 편리하게 육아를 한다는 뜻인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 출시 중이다. 미용실에서처럼 아이를 눕혀 빠르게 머리를 감길 수 있는 '아이용 샴푸 의자', 유축하는 동안 두 손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핸즈프리 유축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오늘날의 육아는 사랑과 정성, 그리고 장비라고 한다. 시간을 아껴줄 편리미엄 제품으로 육아에 날개를 달아보면 어떨까.



1990년대 말 유행했던 '시테크(시간 時+재테크)'가 '편리미엄'으로 인해 다시 떠오르고 있다. 당시엔 사회적 성공·출세를 위해 낭비하던 시간을 아꼈다면, 현재는 더 가치 있는 경험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아낀다. 시간을 절약하는 이유는 조금 다르지만, 예나 지금이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같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편리미엄 라이프를 살아보자.

# ‘편리미엄’을 통해 본 산업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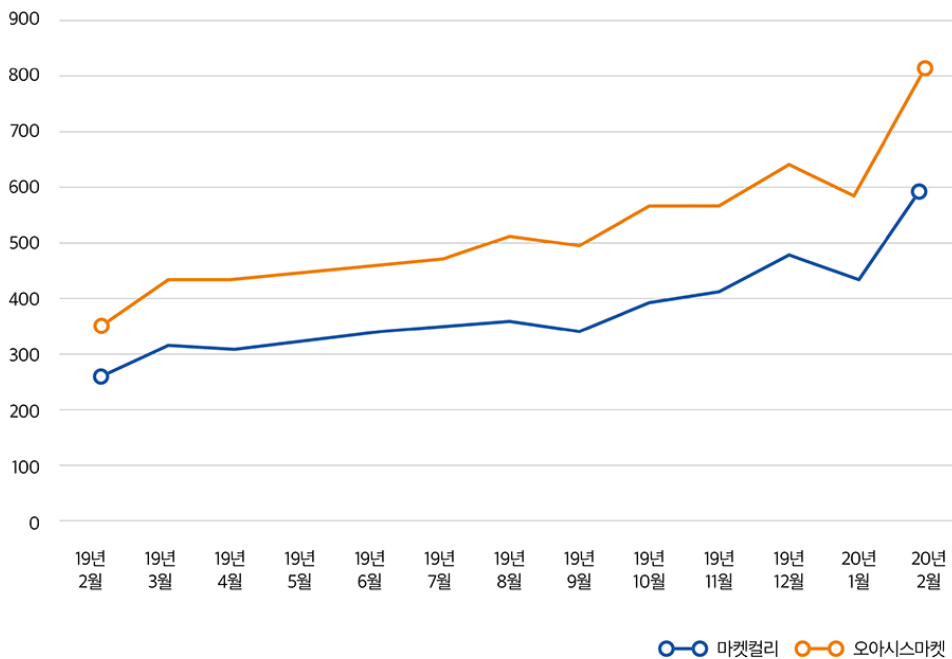
이동시간, 대기시간 등의 시간을 줄여 더 가치 있는 곳에 쓰고자 하는 요즘, 바로 편리미엄 시대다. 이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산업계 역시 발맞춰 공급하고 있다. 두 가지 분야의 ISC 이슈 리포트로 산업계 미래를 그려보자.

## 음식ISC

###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다 잡은 배송 플랫폼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거래가 추세다. 이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길 바라는 편리미엄 시대 속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1인 가구, 맞벌이 부부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집안일에 드는 시간을 줄이길 원한다. 마트나 음식점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배송해 주는 편리함을 선호하는 것이다.

과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떠올려보자. 마트로 이동해 가격을 비교하며 장을 보고, 줄을 서 계산한 후 집으로 향한다. 식자재를 손질하고 요리 한 후엔 뒷정리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편리미엄 시대엔 e-커머스, 온라인 쇼핑을 통해 편리하게 장을 본다. 손질이 완료된 식자재, HMR 제품(Home Meal Replacement) 등을 배송받는다.



O2O(Online-to-Offline)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은 배민프레시, 헬로네이처, 마켓컬리 등이 있다. 2020년 3월 22일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의 성장률을 보였고, 그중에서도 식품 구매는 51% 성장했다. 이를 보아 업계 비즈니스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 줄 서는 시간도 아까워...사이렌 오더



현대인에게 1일 1커피는 필수다. 카페 계산대에 줄을 서는 시간은 1분 남짓으로 1년이면 총 365분인데, 이 시간을 절약해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하고, 매장에선 픽업만 하는 편리한 시스템을 사용한다. 바로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다.  
사이렌 오더는 스타벅스 도착 전 지정과 메뉴를 고르고, 도착 후 바로 음료를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다. 계산대에 줄 서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이용자들의 편의성은 물론 매장 회전율의 증가세도 보인다. 이 서비스는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800만 건 이상의 오더가 발생할 정도로 성공적이다. 신속한 픽업을 원하는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 전자HSC

### 건강관리기기 제품의 성장

가정에서 간편하게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웰니스기기(개인용 건강관리 제품)는 개인 건강관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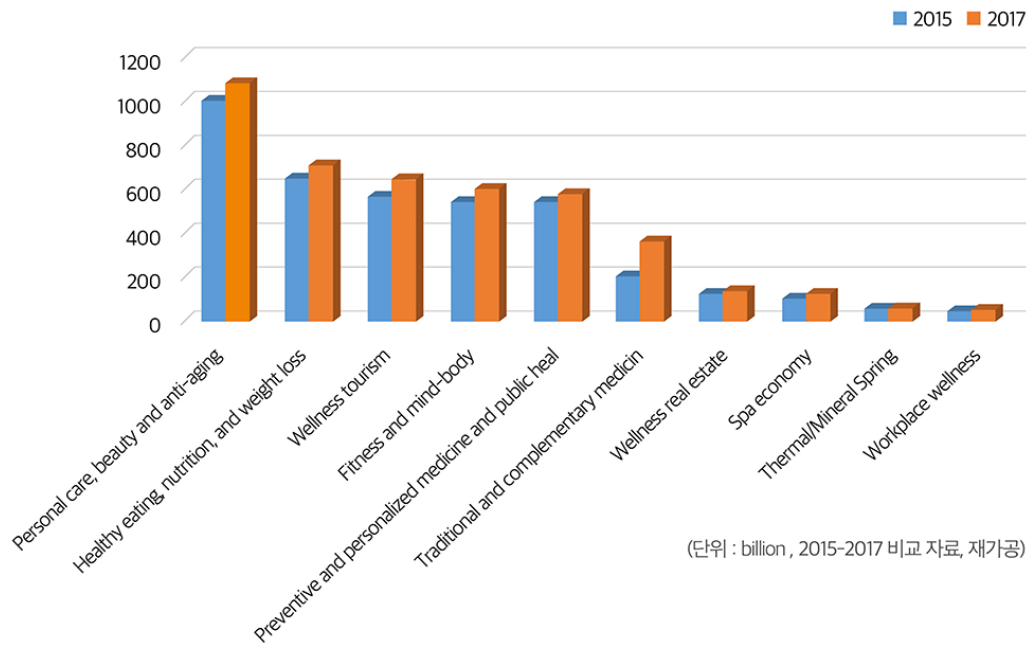
또 의료기기산업의 주요 수요처가 병원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공급처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의료기기 전문기업이 아닌 글로벌 전자-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헬스케어 산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이 있다.

업체명	세부 내용
아마존	-2018년 필팩이라는 온라인 약국 인수. 원격 진료 서비스 검토 중 -자동 음성 인식으로 인사와 환자 대화 기록하는 도구 출시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 시작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진행 -환자 관리를 돕고,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환자를 모니터링하도록 지원
구글	-환자 관리툴 제공 -인공지능 활용 환자 데이터에 특정 질환을 진단하는 서비스 제공 -웨어러블 업체 팻빗 인수로 건강정보 확보
애플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을 통해 심박수, 심전도, 맥박, 체온 등을 체크하는 기능 추가 -웨어러블 기기와 핸드폰을 통해 건강 상태 진단 서비스 제공

\*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제품을 통해 개인의 체온, 심장 박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거울을 통해 실시간 체온을, 손목시계를 통해 심전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혈액검사도 할 수 있다. 병원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검사도 집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이다.

## 세계 웰니스기기 산업 시장 규모 성장세



(단위 : billion , 2015-2017 비교 자료, 재가공)

분야	2015	2017
Personal care, beauty and anti-aging	999	1082.9
Healthy eating, nutrition, and weight loss	647.8	702.1
Wellness tourism	563.2	639.4
Fitness and mind-body	542	595.4
Preventive and personalized medicine and public health	534.3	574.8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199	359.7
Wellness real estat	118.6	134.3
Spa economy	98.6	118.8
Thermal/Mineral Springs	51	56.2
Workplace wellness	43.3	47.5
합계	3,796.8	4,311.1

\* 출처 : statista



웰니스기기는 의료용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문제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의 시간을 아껴주는 편리한 제품이라는 것이 강점이며, 의료기기 인허가절차가 없어 빠르게 시장 진입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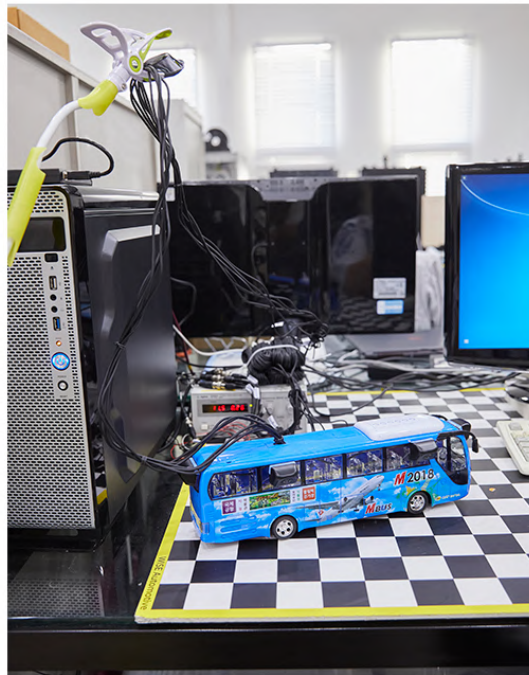
# 편리미엄 시대의 이동수단 미래형자동차를 말한다, (주)와이즈오토모티브

(주)와이즈오토모티브는 차량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업이다. 서울대학교 시스템전자컨설팅 연구소의 석 박사급 연구 인력을 주축으로 2005년 설립됐다. 2015년엔 자동차 분야 최초로 산업통상부 지정 두뇌역량 우수기업에 선정되었고, 2018년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K-ESP 자격을 획득했다. '편리미엄' 시대의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미래형자동차와 안전지원 제품 개발을 통해 더욱 편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 편리함을 더해줄 3가지 사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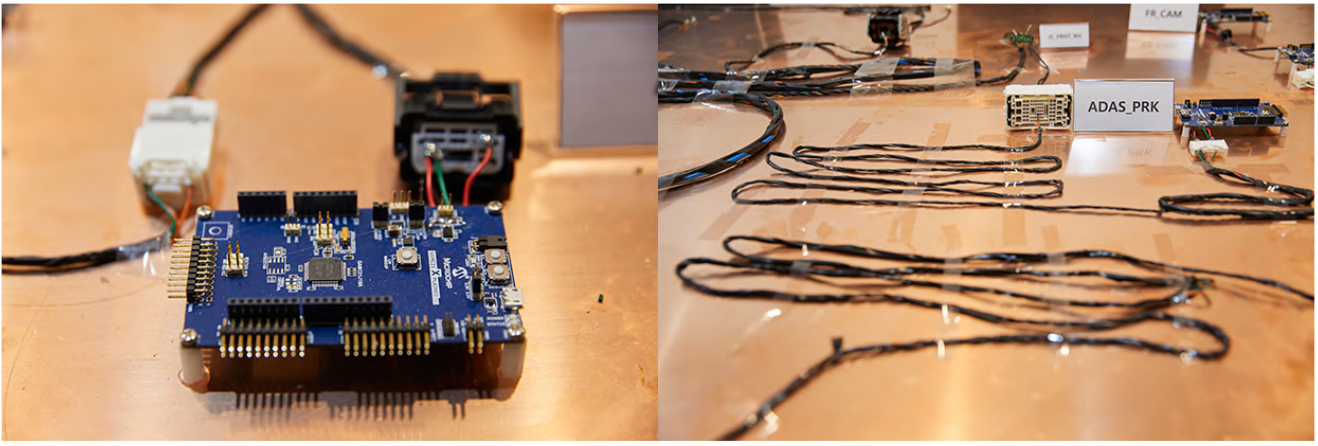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3개 부문으로 영상 솔루션 사업 부문, 신뢰성 시험 사업 부문, ESP 사업 부문이다. 먼저 영상 솔루션 사업 부문에서는 세계 최초로 개발해 사업화한 4D 타임 비전 '이지파킹(Ez Parking)'이 대표적이다.

이는 하나의 후방 카메라를 사용해 탑뷰(Top view) 형태로 차량 주변을 보여주는데, 동시에 차량에 가려지는 바닥면도 보여주어 주차 시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지금은 '투명 버킷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장비 운전사의 시야를 차단하는 구조물 뒤편의 영상을 제공해, 사각 지역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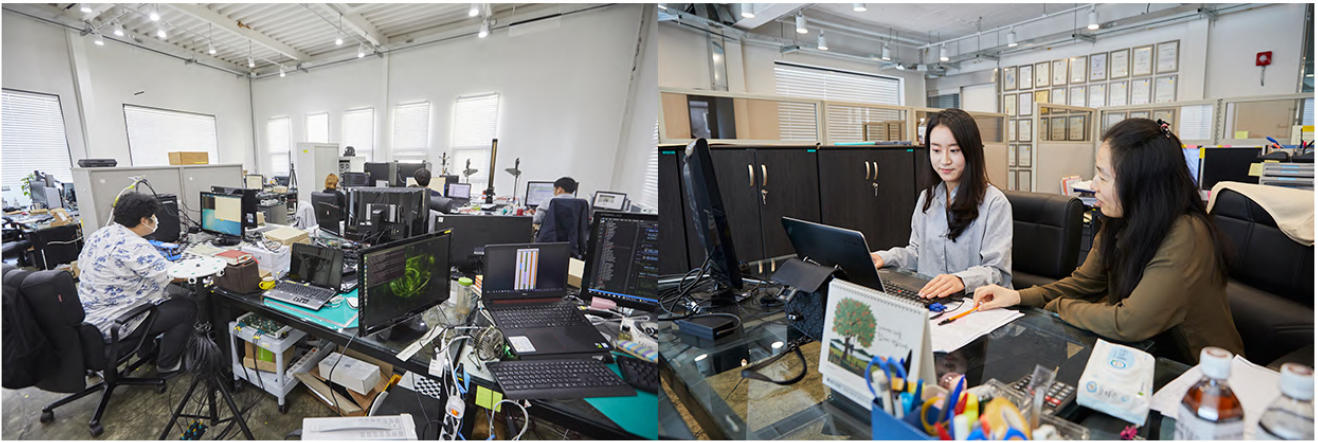
같은 부문에 또 다른 기술이 있는데, 하나는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카메라 기반 BSD(사각 지역 감지 장치)', 나머지는 국내 두 번째로 개발한 'LDW(차선 이탈 경고 장치)'다.





두 번째 신뢰성 시험 사업 부문은 국내외 주요 자동차 부품사의 제품을 시험하고, 불량률 분석하는 일이다. 청주, 용인, 천안에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 인증 신뢰성 시험센터와 고품 분석센터를 운영 중이다.

마지막은 ESP 사업이다. 이는 기업의 연구 인력을 활용해 완성차 제작사나 자동차 부품사들의 영상 ADAS, 차량 ECU 임베디드 기술, 차량 와이어링 및 네트워크 기술을 주축으로 한다.



## 다양한 협업으로 미래를 그린다

전자 ISC와의 만남은 2018년 전자 부품 얼라이언스 자동차분과 출범이 계기가 되었다. 2018년부터 전자 ISC에서 주관하는 미래형자동차 산학협력프로젝트에 참여해, 3년째 산학협력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서울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커넥티드카 전문기술교육사업의 협약기업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커넥티드카 40대(代) 재도약 사업의 교육과정과 채용연계에 관한 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NCS기업활용컨설팅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이는 하반기 인재채용공고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뚜렷한 사업 부문, 관련 기관과의 협업, NCS기업활용컨설팅을 통한 인재 채용까지. 프리미엄 시대 속 미래자동차의 길을 만들어나가는 (주)와이즈오토모티브의 앞날이 기대된다.

### mini interview

#### (주)와이즈오토모티브 김인수 대외부 이사

Q ISC 웹진 9월호의 테마 '프리미엄'; 자율주행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A 자율주행과 함께 언급되는 키워드는 바로 '공유'입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며, 사용자가 자동차를 유지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에 따른 비용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저렴지라도, 자율주행이 주는 편리함이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자율주행은 '프리미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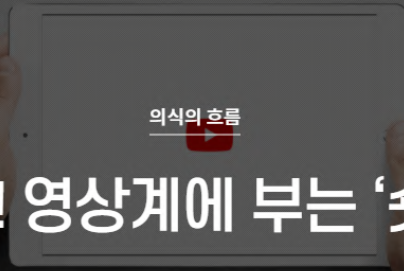
A 자사의 강점인 영상 ADAS 시스템을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지금도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 기반 인식 기술이 늘 언급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 통신, 교통 등의 다른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편리함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미래자동차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회사의 비전입니다.



Q NCS기업활용컨설팅과 관련한 계획도 궁금한데요.

A 앞서 말씀드린 모든 걸 실현할 밑바탕은 '우수한 인력'입니다. 전자 ISC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우수 인력 양성에 NCS기업활용컨설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자사를 넘어서 같은 분야, 또 분야를 넘어 국가 경쟁력 확보에까지 기여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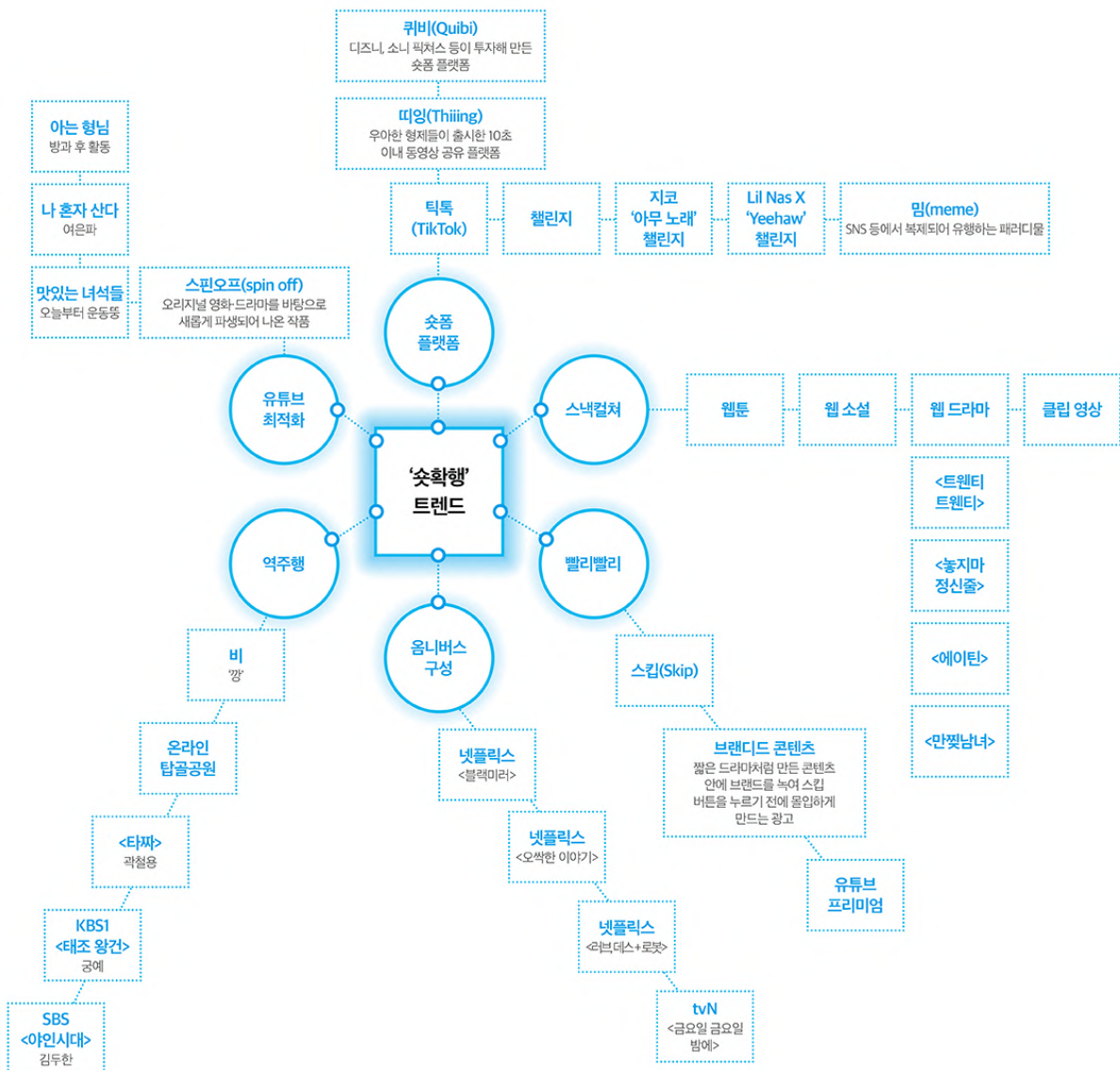


# 시간이 금이다! 영상계에 부는 '숫확행' 트렌드

드라마 정주행은 옛말... 요즘엔 유튜브에서 10분으로 요약한 편집본을 본다.

'더 짧게!'를 외치며 숫확 형식이 대세가 되었고, 방송사에서도 숫확 형식을 가져와 TV에선 맛보기 영상을, 유튜브에서 풀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온라인 활동이 활성화됐다. 특히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즐기는데, 틱톡으로 짤막한 챌린지 영상을 공유하거나 예전 영화·드라마 등을 '짤방'으로 소비한다.

시간이 금인 시대! 영상계엔 '숫확행' 바람이 불고 있다.



업(業)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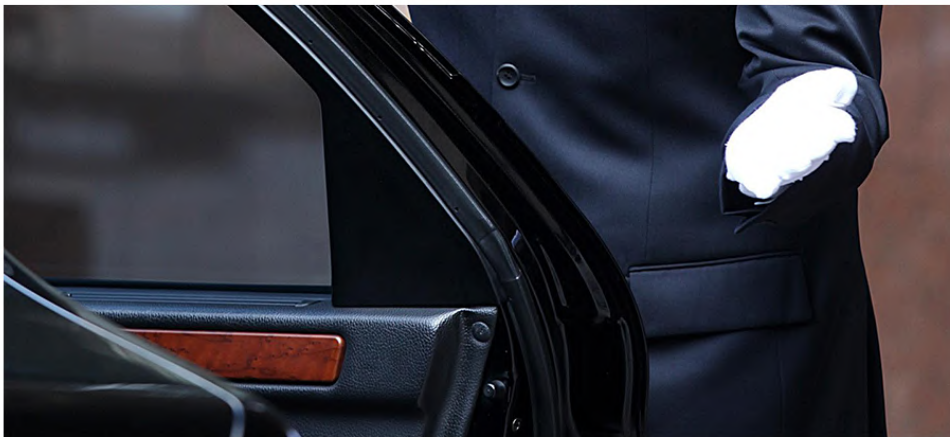
## 편리미엄을 추구하는 당신을 위한 호캉스 패키지 + 짐 옮기기 서비스

바쁜 일상 속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여행' 하지만 코로나19에 긴 장마와 태풍까지 겹쳐 올해는 여기저기 다니는 게 힘들다. 이럴 땐 호텔에 꼭! 박힌 호캉스가 절실하다. 특히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호텔 패키지 상품은 '편리미엄'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딱이다. 이동 없이 한 장소에서 미식, 레저, 문화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국내 호텔들도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호텔 안에서 뭘 할지 고민할 틈 없도록 다양한 혜택과 프로그램을 담는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5일 동안 이어진다. 1분 1초가 아쉬운 달콤한 연휴, 고민과 이동 시간을 줄여줄 호캉스 패키지를 이용해보면 어떨까.

[사진-각 호텔 홈페이지]

### 시그니엘 서울 – Arrive in Style

여행할 때 이동 시간은 꽤 아깝다. 어떤 이들은 '길에 시간을 버린다'라고도 한다. 하지만 그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무언가가 있다면 뜻깊게 느껴질 것이다. 시그니엘 서울의 'Arrive in Style' 패키지에선 여행의 시작과 끝, 즉 이동 시간을 프리미엄 하게 즐길 수 있다. 투숙객의 편의를 위해 '롤스로이스'로 픽업/랜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가능 지역은 인천공항-김포공항 그리고 서울 시내 안이다.



###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인천 – Stay at Paradise

호캉스의 여유로움에 예술적인 감성도 즐길 수 있는 패키지가 있다. 바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인천의 'Stay at Paradise'다. 패키지 구성 중 하나로 전시를 볼 수 있으며, 현재는 <오! 마이시티> 전시 10/4(일)까지 진행 중이다. 전문 큐레이터가 기획한 전시로 울가울 감성을 충전해보길 바란다.



## 신라 호텔 서울 – Autumn Tea Experience

신라 호텔 서울의 'Autumn Tea Experience' 패키지로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자.

티 세리머니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차의 종류와 문화, 다도법, 블렌딩, 시음 등을 즐길 수 있다.

자연에 둘러싸여 가을 햇살을 받으며 여유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해당 프로그램은 만 19세 이상 투숙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9/18(금)부터 예약할 수 있다.



## 힐튼 부산 – Family Lucky Bag Package

긴 추석 연휴를 맞이해 가족 여행을 계획한다면,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호캉스 패키지를 추천한다. 힐튼 부산의 'Family Lucky Bag Package'는 아이를 위한 수영 키트와 키즈 어매니티를 선물로 제공하며, 수영장 카바나와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어 가족 여행으로 제격이다.



## 롯데시티 호텔 제주 – Just Chilling

언택트 시대 속 '룸콕' 패키지를 만나보자. 롯데시티 호텔 제주의 'Just Chilling' 패키지로 느긋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 게임, 애플리케이션 등을 결제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와 더바디샵 입욕제 등이 구성품이다. 프리미엄한 객실 안에서 편리하게 호캉스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 두 손이 자유로운 짐 옮기기 서비스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요즘 국내 여행이 더욱더 인기가 있다. 이에 대다수의 사람이 개인위생 수칙, 거리두기를 지키며 전국 곳곳으로 떠난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여행객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행할 것이다. 이들을 일명 '뚜벅이'라고 부르는데, 뚜벅이가 많은 제주도에선 '짐 옮기기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다. 현재 '가방을 부탁해', '짐다오', '짐 매니저' 등의 플랫폼이 있으며, 대개 가방의 무게에 따라 비용을 측정한다. 기내용 캐리어 10,000원, 20kg 이상 특대형 캐리어 20,000원 선이다.

가방을 픽업해갈 장소와 시간을 업체에 알려주고, 내 가방이 무엇인지 사진을 찍어 보낸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짐을 찾을 수 있다.

여행에 편리함을 더해줄 짐 옮기기 서비스로 두 손이 자유로운 여행을 해보자.



슬기로운 직장생활

# 클릭 한 번으로 표현하는 직장인'S 이모티콘

1분 1초가 바쁜 업무 시간!

## 클릭 한 번으로 표현하는 직장인'S 이모티콘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박대리의 막나는 사회생활

by. 찬비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묵직한 한마디!  
친한 동기와 사용하기 좋은 이모티콘이다.  
같은 그림체로 총 5개의 시리즈가 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직장인의 넵!모티콘

by. 윤직원



직장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뭘까? 아마 '넵'일 것이다.  
많은 의미를 가진 '넵'이지만, 말만으론 부족하다면  
이 이모티콘을 써보는 건 어떨까.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할 말 다하는 회사원

by. 밤뜰이



직장생활에서 표정 관리는 필수~  
웃으며 할 말 다하는 이모티콘이 있다.  
늘 마음 속에 담아두고 있던 이야기를 표현해보자.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오늘은 직장인 놀이!

by. 가스파드 앤 리사



바쁜 업무 중에도 미소 짓게 만드는 그림체!  
상사에게도, 동기에게도  
두루두루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해병아리의 사회생활 리액션

by. 씨노



갓 입사한 병아리 같은 사회 초년생이 쓰기 좋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도록  
다양한 리액션이 준비되어 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생활의 발견

## 삶에 편리함 더하기+

현대인은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시간은 줄이고, 이로 인해 얻게 된 시간을 더욱 가치 있는 곳에 쓰길 원한다. 멀티태스킹 제품을 사용하거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비용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1분 1초 당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지금! 삶에 편리함을 더해줄 세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나보자.

### 요즘 사람들의 독서법, 듣는 책 '오디오북'

편리미엄을 외치는 시대 속에서 '귀로 듣는 책'이 출시됐다. 일명 '오디오북'이라고 하는데, 종이를 넘길 필요 없이 그저 귀만 기울이면 책을 읽을 수 있다. 오디오북은 책을 읽기 힘든 상황이나 장소에서 활용하기 좋다. 붓비는 지하철 출퇴근길, 자전거를 타고 바람 쐬 때, 집안일을 할 때처럼 말이다.

오디오북의 가장 큰 장점은 멀티태스킹이다. 이어폰을 꽂으면 두 눈과 손으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편리함에 사용자가 증가하자 업계에선 너도나도 오디오북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월라 오디오북', '밀리의 서재', '오디오 클럽', '스토리텔' 등이 있다.

오디오북은 AI 기술을 활용해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책을 읽어준다. 또 전문 성우와 배우가 읽어주는 책도 있으니, 최애의 목소리도 느껴볼 수 있다. 책 요약 서비스 제공으로 해설과 핵심 부분을 짚어주고, 타이머 기능으로 잠들기 전 독서도 가능하다. 정말 편리하지 않은가!

한자리에 앉아 책을 독파할 시간이 없다면, 누군가가 읽어주는 책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



## 은행 애플리케이션 '대기 번호표 발급'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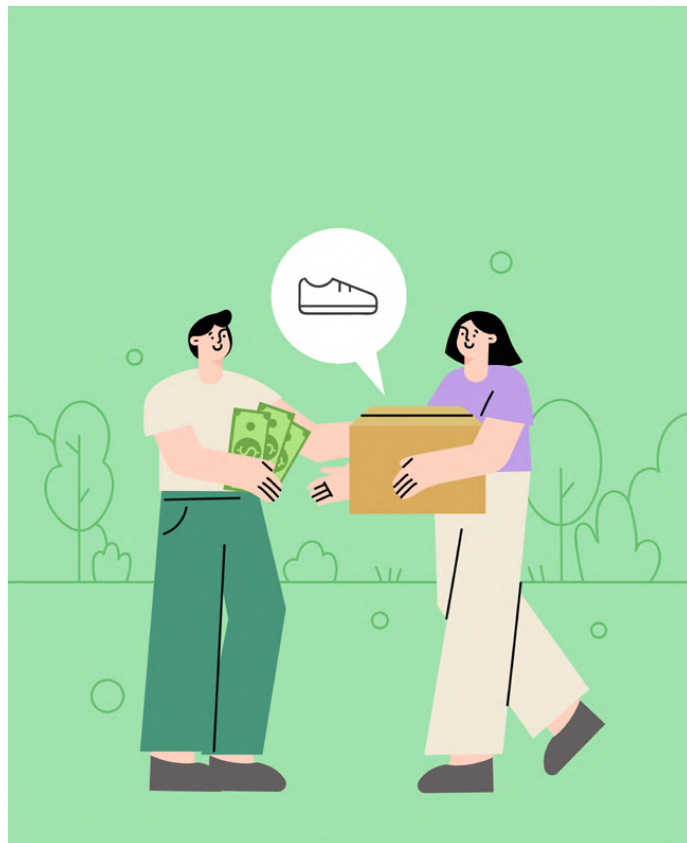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은행 애플리케이션도 쓸 것이다. 이체, 공과금 납부는 물론 적금 개설, 대출까지 다양한 업무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한 세상이다. 하지만 은행에 꼭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다.

지금 은행에 가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은행까지의 이동시간은 당연하고, 도착해서도 대기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점심시간 짬을 내 방문하는 직장인에게 1분이 소중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젠 은행 애플리케이션 속 '대기 번호표 발급' 기능을 사용해 시간을 단축해 보자.

현재 신한은행 '솔', 국민은행 '리브', 하나은행 '하나원큐' 등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근처 영업점을 찾고 대기 번호표를 받는 시스템이다. 실시간 대기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까지 할 수 있어 더욱 편하다.

단 번호표를 너무 일찍 받아 내 순서를 놓치게 될 수 있으니, 시간을 요리조리 계산해 발급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 2020년 판 지니 '인력 중개 플랫폼'



꼭 해야 하지만 귀찮은 일들이 있다.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청소하기 등이다. '누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쯤 생각해봤을 텐데, 요즘엔 소원을 빌 듯 원하는 것을 척척해 줄 사람을 구할 수 있다. 마치 영화 <알라딘> 속 지니처럼 말이다.

'김집사', '애니맨', '도와줘' 등의 인력 중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내 시간을 아껴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처리할 업무를 등록하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지원하는 형식이다. 편의점 다녀오기, 커피 사 오기, 짐 옮기기, 반려견 산책시키기 등 다양한 일을 등록할 수 있으며, 금액대도 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요즘엔 생활 속 간편한 일들은 비용을 주고 해결하고, 아낀 시간은 좀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것이다.

영화로운 ISC

# 시간이 돈인 세상, '인타임'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시간이 금처럼 귀하다는 의미인데, 정말 시간이 돈인 세상에 살면 어떨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길 원하는 편리미엄 시대 속 우리는 비용을 주고 시간을 확보한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버스 대신 택시를 탄다던가, 장을 보러 가지 않고 밀키트(meal kit)를 온라인으로 사 배송받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영화 <인 타임> 속 시간은 말 그대로 금이자 생명이다. 시간이 돈인 세상에선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사진-네이버 영화]



주인공 월(지스틴 팀버레이크)이 사는 세계의 모든 비용은 시간으로 계산된다. 교통비와 식비 등 모든 것을 시간으로 지불하며, 일한 후 급여도 시간으로 받는다. 또 모든 인류는 25세가 되면 노화가 멈추고 팔뚝에 새겨진 '카운트 바디 시계'에 따라 1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을 다 쓰면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이에 가난한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안 그래도 모자란 시간을 써야 한다. 시간이 부족해 늘 뛰어나다며, 남은 생이 얼마인지 불안해하며 시계를 자주 본다. 하지만 부자들은 몇 세대에 걸쳐 시간을 축적하고 25세 젊은 외모를 유지한 채 여유롭게 삶을 누린다.



어느 날 월은 술집에 갔다가 시간 강도를 만나 위험에 처한 헨리(멧 보머)를 구해준다. 헨리는 105년째 사는 부자로, 월에게 소수(부자)의 영생을 위해 다수(가난한 사람)가 죽어야만 하는 시스템의 비밀에 관해 이야기 해준다. 모두가 영원히 살면 땅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역을 여러 개의 타임존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빈민가에 물가 폭등을 일으켜 인구수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헨리는 신체가 25세여도 정신은 늙고 피폐해지며, 때가 되면 죽는 게 섭리라고 말한다. 오래 사는 것이 불만이나는 월에게 '나만큼 시간이 많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데, 월은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다음 날 눈을 뜬 월. 헨리는 온데간데없고 창문에 'Don't waste my time(내 시간을 헛되게 쓰지마)'이라고 적힌 글을 보게 된다. 헨리가 자신에게 남아 있었던 약 100년의 시간을 월에게 주고 자살한 것이다.



부자가 된 월은 엄마와 부촌인 '뉴 그리니치'에 가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엄마는 퇴근 후 버스 요금인 2시간이 없어서 집으로 뛰어가던 중 시간을 다 써버려 죽는다. 그러던 와중 월은 헨리의 시간을 강제로 훔쳐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누명을 쓰게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됐다.

결국 월은 혼자 뉴 그리니치로 간다. 그곳에서 대물림되는 시간으로 호화롭게 살아가는 부자들을 보며 부조리한 사회와 마주하게 된다. 본격적인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가끔 시간보다 돈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돈은 소비한 후 다시 벌어들일 수 있지만, 시간은 오직 소비하는 것뿐이며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비용을 써 시간을 버는 프리미엄 시대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영화 <인 타임>을 통해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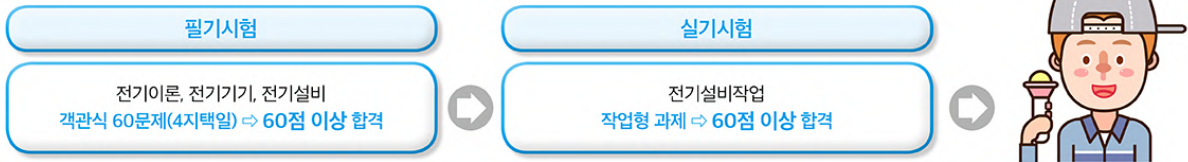
힘이 되는 자격증

# 360만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기능사'

360만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는 인기 국가기술자격증을 알아보는 시간.  
9월에는 빛을 밝히는 전기! 이를 관리하는 자격증 전기기능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  
전기기능사는  
전기 설비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회전기, 제어장치 또는 빌딩, 공장, 전력시설물의 전선, 케이블, 전기기계 및 기구를 설치, 보수, 검사, 시험 및 관리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

## 자격 내용과 취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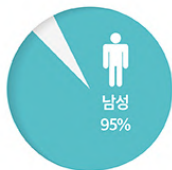


## 자격 취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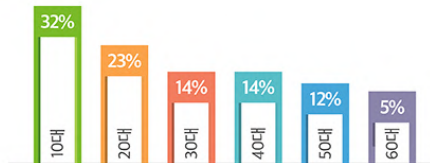
### ○ 취득자 수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원	15,262명	16,644명	17,725명	18,138명	19,83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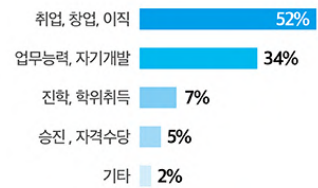
### ○ 응시자 동향 (2019년 기준)



성별



연령



응시목적

## 자격취득자 워크넷 구인현황 (www.work.go.kr, 2018년)

### 구인건수



### 채용 제안금액



## 우대 사항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전기공사법 시행령)

- 자격취득 및 경력에 따라 초급~고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에 따라 전기공사 규모별 시공관리 허가

###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일정규모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

### 감리원 자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자격 취득 및 경력에 따라 전력시설물에 대한 초급~중급 감리원 인정

## 관련 직업 전망 (www.work.go.kr, 한국직업전망)

전기전자관련직 구인 인원이 2015년 239천명 → 2018년 303천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

전기장비제조업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도 2015년 260천명 → 2025년 280천명으로 증가 예상

최근 친환경에너지 설비 수요의 증가로 인해 관련 인력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의 모든 것(큐넷) www.Q-net.or.kr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www.ncs.go.kr | 직업·일자리 정보(워크넷) www.work.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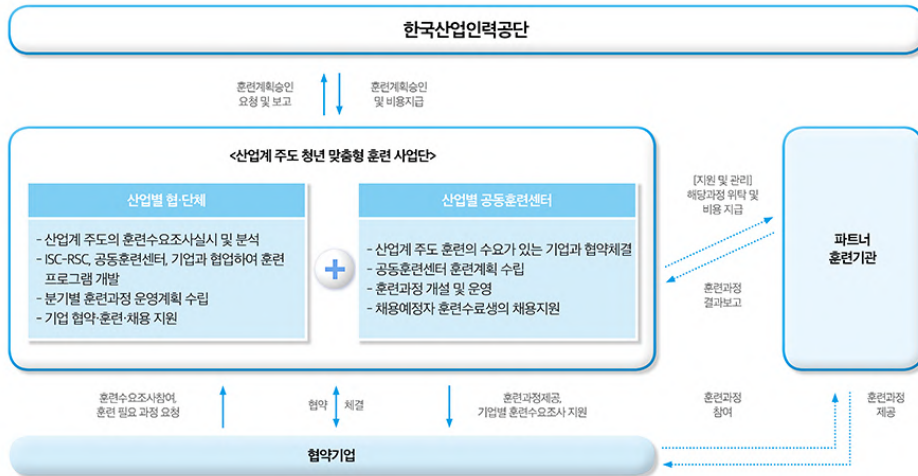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 청년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합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산업별 협·단체와 산업형 공동훈련센터가 만나 사업단을 구성했다.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산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시행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인력 미스 매칭을 해소할 수 있다. 훈련 수요조사부터 훈련과정 설계, 훈련시행까지 진행하며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단 구성

산업별 협·단체 1개소와 산업형 공동훈련센터 1개소가 사업단을 구성한다. 아래와 같은 시스템으로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이 이루어진다.



# 2020년도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사업단 현황

자동차, 관광·레저, 스마트공장 산업 분야 등 총 7개의 산업 분야가 있다.(2020년 8월 10일 기준)

연번	산업분야	산업별 협·단체명	산업형 공동훈련센터명	훈련과정 수(인원)		
				계	재직자 (향상)	채용예정자
계	7개	7개	7개	78개 (2,587명)	57개 (1,662명)	21개 (925명)
1	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9개 (355명)	7개 (235명)	2개 (120명)
2	금형, 금속가공, 표면처리, 용접(뿌리산업)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뿌리ISC)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협회	20개 (445명)	14개 (325명)	6개 (120명)
3	정보기술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훈련원	17개 (397명)	16개 (272명)	1개 (125명)
4	관광·레저	한국MICE협회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4개 (240명)	1개 (120명)	3개 (120명)
5	스마트공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계ISC)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술교육원	4개 (240명)	3개 (120명)	1개 (120명)
6	스마트제조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아주대학교	15개 (510명)	13개 (390명)	2개 (120명)
7	디자인·문화콘텐츠	한국디자인진흥원(디자인ISC)	홍익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9개 (400명)	3개 (200명)	6개 (200명)



훈련 대상은 재직자 및 채용 예정자로, 사업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다. 훈련 과정은 정보기술, 스마트공장, 생산 품질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등 16개 분야 78개이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운영 절차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훈련 과정은 HRD-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3/1/7/3>)  
- 담당 부서 : 지역산업별지원국 산업지원부(052-714-8752,8793)
-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